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대상’ KBS 대기획 한반도 30억 년 <히든 어스>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 자료 제공 : 한국방송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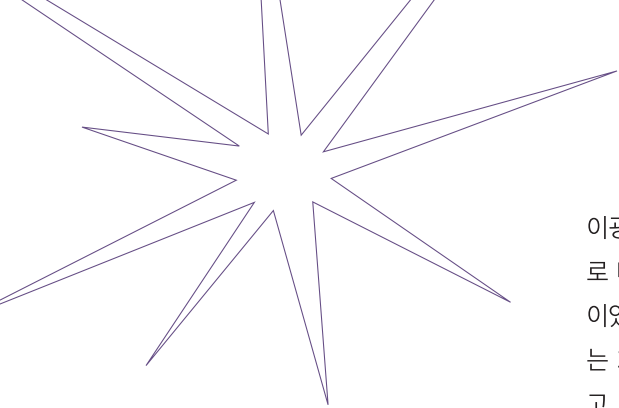


제50회 한국방송대상 포스터

매년 방송의 날(9월 3일)을 기념하여 그해 최고의 방송프로그램과 방송인에게 주어지는 한국방송대상이 제50회를 맞이했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방송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197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수백 편의 작품과 수십 명의 방송인이 경쟁하여 24명의 권위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작)이 결정된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9월 4일 여의도 KBS TV공개홀에서 MBC 김민호, KBS 박지원, SBS 이인권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후 3시~5시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국방송대상을 주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대상 발표와 함께 작품상 25개 부문 27편, 개인상 21개 부문 21명에 대해 시상했다.

시상식 당일 발표되는 제5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은 KBS 대기획 한반도 30억 년 <히든 어스>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작인 KBS 대기획 한반도 30억 년 <히든 어스>는 시생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0억 년에 걸친 한반도 지질 역사를 전달한 과학 다큐멘터리로, 국내방송 최초 8K 초고화질 실사와 그래픽으로 장대한 영상미를 제공, 한국인의 시선으로 한반도 지질 형성의 과정을 담아내 ‘한반도 자연사 교과서’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광록 KBS PD는 “대상을 받고 싶었고, 받아야만 했다. 오랜시간 준비했고, 많은 제작비로 마음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KBS의 대기획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대상을 받은 소감의 첫 마디를 시작했다. 이어서 “<히든 어스>는 30억 년의 자연사를 살펴보는 과학 프로그램으로 나름 수능 공부하듯이 꼼꼼히 공부했고, 틀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며, 오늘은 수능 발표하는 날처럼 기쁜 마음이다.”라며 지난 날의 어려움과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시청자 의견을 언급했는데, ‘넷플릭스를 끊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보겠다’라는 의견과 ‘우와, 수신료... 싸다’라는 의견으로 글로벌 OTT 서비스의 호황에서도 수신료를 바탕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 영향력을 살피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광록 PD는 “<히든 어스>는 KBS 50주년 기념작이었다. 5부작으로 제작되었지만 50부작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저력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좀 더 잘 살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시청자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라며 소감을 마쳤다.

대상 발표 전에는 △뉴스보도 KBS <뉴스 9> ‘엘 성착취 범죄’ 추적 보도 △드라마TV SBS <낭만닥터 김사부3> △시사보도R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획특집 ‘10·29 참사, 기억과 기록’ △다큐멘터리TV MBC경남 <어른 김장하> △뉴미디어프로그램 EBS <당대> 등 총 27편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보도기자상 MBC 이기주 기자 △프로듀서상 MBC경남 김현지 PD △최우수연기자상 이세영(KBS <법대로 사랑하라>) △최우수예능인상 기안84(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나 혼자 산다>) △최우수가수상 아이브(MBC <쇼 음악중심>) △방송기술상 김성민(KBS) △조명상 김효진(KBS) 등 총 21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 이외에도 김연자, 더보이즈, 라포엠, 스테이씨 등 다양한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BS 대기획 한반도 30억 년 <히든 어스>의 대상으로 수상 소감 중인 이광록 KBS PD



- 1 MC 김민호, 박지원, 이인권
- 2 개인상 - 경영·기술 부문 수상자들
- 3 공로상의 EBS 김봉렬
- 4 작품상 - 시사, 보도 수상자 단체
- 5 작품상 - 어린이, 사회공익 수상자 단체
- 6 작품상 - 음악구성R 부문 박대식 수상자

- 7 작품상 - 지역교양R 부문 노광준 수상자
- 8 개인상 - 지역방송진흥 부문 이균형 수상자
- 9 개인상 - 최우수예능인 부문 기안84
- 10 개인상 - 최우수연기자 부문 이세영
- 11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던 KBS TV공개홀
- 12 수상을 함께 기뻐하는 객석의 참석자들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리스트

대상

수상사	작품명
KBS	대기획 한반도 30억 년 <히든 어스>

작품상

부문	수상사	작품명
뉴스보도	KBS	<뉴스 9> '엘 성착취 범죄' 추적 보도
지역뉴스보도	KNN	'영업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독성' 단독 기획보도
시사보도TV	KBS	<시사기획 창> 신년특집 '알고리즘 인류'
시사보도R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획특집 '10·29 참사, 기억과 기록'
지역시사보도	KBS대구방송총국	<시사기획 창> '육창, 여기 사람 있어요'
드라마TV	SBS·삼화네트웍스	<남만닥터 김사부3>
다큐멘터리TV	MBC경남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R	MBC	<뉴스하이킥> 특별기획 '지금도 누군가 떨고 있다'
지역다큐멘터리TV	KBS춘천방송총국	<해무 : 북위 38도 36분 51초>
	울산MBC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지역다큐멘터리R	TBN대구교통방송	TBN대구교통방송-TBN광주교통방송 공동제작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2·28이 5·18을 만났을 때>
예능버라이어티TV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연예오락TV	KBS	<불후의 명곡> 'Rock Festival in 강릉'
연예오락R	KBS	<STATION Z> 'DISCOVER-새로운 K-POP을 향해하다'
지역오락TV	춘천MBC	<가고잡소>
지역오락R	안동MBC	<존애원, 낙강에 뜬 달>
문화예술교양	EBS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사회공익TV	EBS·피그말리온	<EBS 다큐프라임> '학교폭력 공감 프로젝트'
사회공익R	TBN경인교통방송	제3회 한국수어의 날 특집방송 <내 마음이 들리니>
	KNN	<소리로 보는 박물관>
생활정보TV	EBS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생활정보R	CBS	<이강민의 잡지사>
지역교양TV	KNN	UHD 지역문화유산보고서 <천년의 기억> 시즌1&시즌2
지역교양R	OBS	<기후만민공동회 오늘의 기후>
음악구성R	KBS	<임백천의 백 뮤직>
어린이	EBS	<그린조끼구조대>
뉴미디어프로그램	EBS	<당대>

개인상

부문	추천사	수상자	작품명
공로	EBS	김봉렬	<지식채널e>, <하나뿐인 지구> 등 EBS의 상징적 프로그램 기획·제작으로 EBS 위상 확립
지역방송진흥	전북CBS	이균형	1997년 입사 이후 엘리트와 토착세력,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성역에 대한 언론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
보도기자	MBC	이기주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 윤 대통령 사적수행·사적채용 연속보도
카메라기자	SBS	최대웅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 연속보도
프로듀서	MBC경남	김현지	<시스터즈 가든>, <어른 김장하>
스포츠제작보도	KBS	김다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특집 더 캠프>, <2022 서울 E-PRIX> 외
뉴미디어프로그램 제작	SBS	한동훈	<워싱턴·글로벌 인사이드>, <뉴스쉽>, <깐깐남>
영상촬영	KBS	최기하	<붉은 단심>, <유포자들>
미술	MBC	최주연	<금혼령, 조선혼인 금지령>
영상그래픽	KBS	홍윤철	2023 KBS 뉴스 전체 프로그램 개편 총괄 외
음향효과	MBC	박용혁	<라디오스타>, <전지적 참견 시점>, <구해줘 홈즈> 외
조명	KBS	김효진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KBS 2022 연예대상>, <불후의 명곡> 외
아나운서	KBS	이재후	<출발 FM과 함께>
작가	KBS제주 방송총국	김선희	<차사 강림> 외
진행자	KBS	이소정	<뉴스 9>
성우	MBC	남유정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어느 날 사랑이'
방송기술	KBS	김성민	KBS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송경영	MBC	안상필	국내외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
최우수 연기자	KBS	이세영	<법대로 사랑하라>
최우수 예능인	MBC	기안84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나 혼자 산다>
최우수 가수	MBC	IVE	<쇼 음악중심> 'After Like', 'I AM'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 재난미디어센터를 설립해 재난특보와 재난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방송과기술 9월호에서 잠깐 KBS 재난미디어센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제50회 한국방송대상의 방송기술 부문을 재난미디어센터의 김성민 수상자가 받게 되어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다. 김성민 수상자는 재난방송을 위한 필수 시스템을 기획·개발하고 있으며, 재난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50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방송기술 부문

김 성 민

KBS 재난미디어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제50회 한국방송대상 방송기술 상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KBS 재난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이번에 한국방송대상 개인상(방송기술 부문)을 받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년 동안 KBS 재난방송을 위해 헌신하신 센터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이상준 선배님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방송을 함께 만드는 재난센터 동료들과 보도기술국 선후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재난'이라는 주제에서 KBS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Kim Seong Min

재난미디어센터에서 담당 업무

현재 저는 재난미디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난방송과 관련된 시스템을 기획·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인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해

KBS 재난미디어센터에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재난 CCTV 시스템의 기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포털 클라우드 및 백엔드 부분 매니저, 신사업 발굴, 본사 및 지역

방송국 기술지원 등 재난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후 업무 내용

재난센터는 보도국 내에서 가장 많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모니터 많은 곳' 하면 여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재난과 관련된 많은 리소스들이 자동화, 시각화되면서 그만큼 시스템이 다양해졌고, 관제해야 할 리소스가 많아졌습니다.

출근 직후에는 각종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또 전날 저녁 뉴스나 뉴스특보 또는 디지털 뉴스 등 재난 리소스를 사용한 아이템이 있다면 해당 아이템을 리뷰하면서 리소스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기획·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업체미팅이나 내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준비와 같은 페이지워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의 스튜디오와 재난정보 멀티화면

재난방송 관련 업무를 하며, 나만의 습관

재난문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재난문자 알람이 울리면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켜게 됩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당황하곤 했지만, 이제는 ‘아마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한 목표

K-콘텐츠가 대세라던데... K-재난방송? 전 세계적으로 재난방송하면

일본을 떠올리지만(실제로 잘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재난방송 유통 방식 등에서 ‘한국형 재난방송’이 전 세계 지상파 방송국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향후 계획

영상분석과 클라우드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 두 분야에서 엔지니어로서의

66

‘재난’이라는 주제에서 KBS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99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난방송 시스템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열린 ABU DBS 2023에서 ‘Digital and Disaster Broadcasting’을 주제로 KBS 재난미디어센터에 대해 소개하는 김성민 수상자

지난 9월 4일 열렸던 제50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의 조명 부문 수상자인 김효진 KBS 조명감독은 다년간의 조명 업무를 통한 풍부한 현장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송기술인이다. 평소 예능 프로그램의 조명을 담당하며, 빅이벤트에는 그에 맞는 조명 업무를 진행한다. 조명의 역할이 무대의 완성도와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배우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김효진 감독의 수상 소감과 조명 업무에 대해 들어보자.



제50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조명 부문



김 효 진

KBS TV기술국 조명감독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조명상 수상 소감

작년 제49회 한국방송대상에서는 스태프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바로 다음 해에 제가 수상자가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명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날들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에 대한 의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조명 동료들, TS-15 스태프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

습니다. 축하해주신 많은 선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V공개홀 조명감독을 하고 있는 자체로 감사하

고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6

조명은 가장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방송에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하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99

Kim Hyojin



감독님만의 조명 연출

저는 평소 <뮤직뱅크>, <더 시즌즈>, <불후의 명곡>과 같은 음악 프로그램 위주로 담당하고 개표방송, 대선토론, 연말 시상식 등 대형 생방송이 있을 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은 박자감을 중시하고, 노래의 파트별로 목격된 장비를 디자인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곡의 전개에 따른 컬러의 변화와 광량의 변화로 사운드와 조명의 일치를 통해서 최상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조명의 역할에 따라 무대의 완성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개표방송을 할 때는 기존에 비해 이펙트 조명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작 방식은 토론자의 명료한 인물을 위해 포그를 사용하지 않고 생방송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포그 사용을 포함한 이펙트 조명을 통해 토론 등의 생방송에 적절한 집중도와 긴장감을 보강하면서도 인물의 명료함을 유지하는 조명을 추구합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조명 준비 과정

<뮤직뱅크>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회의 세트 회의를 거칩니다. 세트 컨셉에 대한 것과 세부 조정 및 확정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명 설치에 불편하거나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합니다.

두 번째로 조명 도면을 제작합니다. 세트 회의 과정에서 생각한 조명의 컨셉을 디자인 툴로(Vectorworks) 제작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Light convers)으로 그 결과를 예상 및 세부 조정합니다.

세 번째는 설치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생방송 하루 전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곡별 큐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무대를 더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화 및 생방송입니다. 리허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과 실제의 차이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합니다. 여러 차례의 리허설 및 녹화 과정에서 완성도를 더하는 수정을 거칩니다.

다섯 번째는 생방송입니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해서 준비한 것들을 안전하게 마칩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그것으로 완료입니다. 별도의 사후 처리는 없습니다.

조명 제작이 어려웠던 프로그램

딱 한 가지를 꼽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500인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연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전 <다음이 온다>라는 녹화 프로그램에서 강연 프로그램이지만 포그를 사용해서 빗줄기를 살리는 조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동일한 프로듀서가 <500인 회의>를 담당하게 되면서 생방송에도 비슷한 느낌을 요청했습니다. 대선 토론 생방송에서 이런 느낌을 구현한 적은 있었지만 <500인 회의> 세트는 많은 사람이 마주 보는 환경인데 그것도 생방송에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포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펙트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조명팀과 연출팀이 만족하는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무하며 기억에 남는 일

지역 순환근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지역 순환근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송신소에 갔다 왔는데요, 조명 업무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던 차에 지역 순환근무로 송신소에 3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제작 업무를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서 기존 업무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꼈고 다시 돌아와 조명 업무를 하는 지금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명의 완성도를 높이는 김호진 조명감독





조명 준비 과정을 거쳐 실제 설치 후 리허설 장면, 김효진 조명감독은 예능 콘텐츠 외 다양한 생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조명 업무를 하는 후배에게 전하는 말

조명은 가장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방송에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하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고 정진해서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

TV공개홀에서 근무한 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무실 업무 또는 야외 조명 업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